

본예산 집행률 최근 5년 중 '최고'

1~11월 집행률 89%... 불용률 2%대 초반 달성 전망 생활 SOC, 설계·대상 선정 등 사전 절차 미리 준비

지난 11월까지 본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계획된 예산 중 사용되지 못한 예산의 비율을 2%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김용진 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9년 재정 집행 계획 ▲불용 최소화 추진 현황 ▲2018년 본예산(11월) 및 추경예산(12월) 집행 실적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말까지 본예산 현액(올해 예산+작년 이월분) 376조 4000억원 중 336조를 집행해 집행률 89.3%를 달성했다. 최근 5년 간 11월 말까지 집행률은 ▲2014년 83.7% ▲2015년 86.1% ▲2016년 87.7% ▲2017년 88.9%로 올해가 가장 높은 수준이

다. 올해 예산 '불용'률은 역시 2%대 초반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계획된 전체 예산 중 사용하지 못하게 된 예산의 비율을 전체의 2%대 초반 수준으로 한다는 말이다. 예산 불용이란 사전 변경 등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돼 1년 전 계획한 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재정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불용률을 집중 관리하고 있는 정부는 올해 예산 불용률이 목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중각 기재부 재정집행관리과장은 "올해가 2~3주 남은 상황이라 결산이 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집행을 추이나 올해 남은 기간 각 부처에서의 예산 사용 계획을 보면 2%대 초반 불용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올해엔 불용이 불가피한 요소 규모가 1년 전 3조7000억원에서 5조 8000억원으로 비교적 크게 늘었다. 불용 불가피 요소란 태풍·지진 등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하는 목적에 비비와 환율·금리 변동에 따른 비용 등을 의미한다.

권 과장은 "올해 불가피 요소가 작년에 비해 좀 더 많이 발생했다"며 "재해와 더불어 환율·금리 변동이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올해엔 금리 변동의 영향이 더 컸다. 작년엔 금리가 올해 오를 것이라 예상이 다수였던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기 하방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상반기에 실시한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5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해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연내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기재부는 특히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 SOC 사업의 경우 사업 설계·대상 선정 등 사전 절차를 미리 준비해 내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본예산 확정 시 즉시 추진하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지자체 추경 예산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예정이다. 추경 예산 반영 이전에도 '지자체 자부담 분 확보 이전 국비 우선 교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적극 독려할 것이라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집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불용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남은 기간 2019년도 예산 집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 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깜빡한 신용카드 없나 찾아보세요'

금감원, 통합조회 가능한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오늘 오픈

소비가 보유한 신용카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문을 연다. 혹시 존재를 잊고 있었던 신용카드가 없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신용카드 보유개수, 결제 예정금액, 사용금액, 포인트 내역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총 1억 226만개에 달한다. 국민 1인당 평균 3.6개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도 822만개나 된다. 전체의 8.0%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카드 보유현황이나 사용내역 등을 일괄조회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금감원의 신용카드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카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다. FC,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15개 카드사 내역이 제공된다.

제공 정보는 카드정보와 포인트 정보로 구분된다. 카드정보 조회를 통해서도 보유현황이나 이용한도, 휴면카드 여부, 연체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정보 조회를 통해서도 카드사별 잔여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를 볼 수 있다.

서비스는 금감원의 '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는 PC 인터넷을 통해 서민 이용이 가능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잊고있던 휴면카드와 포인트를 조회해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정리하고, 포인트 활용을 촉진해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 계좌와 한눈에 '서비스'의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시스템 기능도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 3분기 중에는 참여기관에 증권사를 추가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일괄조회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한 50만원 이하인 비활동성 소액계좌의 잔고이전과 계좌조회 기능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서민금융기관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 삼천동지점 '사랑의 생필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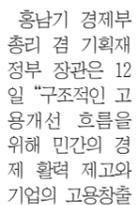
농협은행 삼천동지점(지점장 진기영)은 지난 10일 삼천동 소재 장애인 권익,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라엘장애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준비된 생필품은 삼천동지점 직원들이 준비했으며 '라엘장애인복지센터'에 전달, 센터의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로 전달했다.

진기영 농협은행 삼천동지점장은 "이번 연말에는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NH농협은행 삼천동지점 직원들은 주변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 삼천동지점은 2019년에도 농촌일손돕기, 사랑의 온기 나누기(현열운동), 불우이웃돕기 등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7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홍남기 "민간 경제 활력 제고, 기업 고용창출력 확충 절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구조적인 고용개선 흐름을 위해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와 기업의 고용창출력을 확충하는 게 아주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의 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는 서포터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협은행 호성파크지점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

농협은행 호성파크지점은 지난 11일 호성동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을 찾아 50여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했다고 밝혔다.

유금례 농협은행 호성파크지점장은 "농협은행 호성파크지점은 지역금융기관으로 이웃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에 1차 역점을 두는 차원에서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운영 하려고 한다"며 "1기 경제팀이 그동안 사람 중심경제 전환 하에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등 새 정부방향을 잘 설계하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용지표, 분배지표가 부진해 여전히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라며 "11월 제조업의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고 우리 경제 허리인 30~40대 취업자 감소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2기 경제팀은 지금까지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최근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경제활력 제고와 역량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포용성

을 지속하면서 시장의 기대와 다소 다른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필요시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주력 서비스와 신산업 창업 수도권 등 곳곳에서 경제활력이 일어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펴겠다"며 "민간 시장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두겠다"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2기 장관들은 어느 시 기보다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2기 경제팀이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이던 수시로 만나 토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뉴스시



농협은행 호성파크지점이 지난 11일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을 찾아 50여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장애인의 꿈과 희망 전달하는 나눔축산운동

전북농협지역본부, 장애인 복지증진 위해 공기청정기 전달식 가저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 동진강남협(조합장 김투호)은 12일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백여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김성희)은 장애인들의 소득증진과 사회 적응을 위해 3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물티슈 등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작업장 내 먼지가 발생되고 있어 작업자들 건강을 위해 나눔축산운동본부에서 공기청정기 4대를 구입하여 전달했다.

김창수·김투호 조합장은 "축산인들의 정성을 담은 후원품이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의 에너지로 전달되고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축산업계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



해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축산운동은 축산업의 사회공헌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축협, 축산 단체 임직원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여 기금을 조성, 조성된 기금은 불우이웃돕기, 환경정화활동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